

# 기억 치유로서의 통일

## 한국 개신교회 통일담론과 과제

전순영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1.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흐름
  - 2. 선언과 성명서에 나타난 통일담론
- III.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정치화
  - 1. 정치권의 통일담론
  - 2.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분열과 문제점
- IV.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한 제언
  - 1. 성경적 통일신학의 확립
  - 2.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대북관 정립
  - 3. 기억의 치유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13>

---

• ABSTRACT •

---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Redemption of Memory:  
Discourse on the Unification and the Tasks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Research Fellow, Jeon Sun Young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church's discourse on the unification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divided by conservatives and liberals to seek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a new discourse that can contribute to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led the discussion of the unification, but after democratization,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have become active in the private sector. The areas where the discourse have been formed include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civil society, academia, and religious circles. The unification discourse of the church has been led by the progressive church at first. Then the conservative church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some time conservatives and liberals united, but later divided again. Progressive churches emphasize peace while the conservative focus on a mission. The problem is that the political discourse on the unification seems to be transmitted to the Korean church without deep theological reflection,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n North Korea, which has been more influenced by political ideology. Sinc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 personal, historical, and social dimension with the gospel declaration, the discourse on the unification should converge in the middle direction of integrating both the unification and peace movement as well as the North Korea mission. Therefore, this paper raises the need for a new unification discourse as redemption of memory to be created on the basis of biblical unification theology, objective information-based perspective on North Korea, and unity of church.

**Key words:** Korean Protestant Church's Discourse on the Unification, Ideological Conflict, Perspective on North Korea, Biblical Unification Theology, Unity of Church, Redemption of Memory

---

## I. 들어가는 말

담론은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말하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나 발표, 문서를 포괄한다. 담론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매개될 수도 있지만, 사회 제도적인 층위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하고 교환되고 수용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다.<sup>1)</sup> 담론은 대체로 해당 집단의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성명서나 선언 등의 형태로 생산되며, 어떤 사안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은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였다. 1980년대까지는 정부가 통일담론을 주도했지만, 민주화 이후 민간영역에서도 통일논의가 자유로워졌다. 통일담론이 형성되는 영역은 정부 및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를 두루 포함하며,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계속 그 내용이 달라져왔다. 국내외 정치상황이 반영되는 통일담론의 특성은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교회의 통일담론이 신앙적 고백보다 정치적 이념에 더 좌우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과 전쟁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는 단초는 정체성의 재조정과 타자의 포용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통일담론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이기형,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14-3(2006), 145.

## II.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논의에 앞서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을, 진보는 기존 질서를 개혁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 한국사회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명시적인 국가이념으로 채택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미적이고 성장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로, 반미적이고 분배정의의 강조하며 이념을 떠나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로 분류된다.<sup>2)</sup>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발생한다. 보수는 반공주의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진보는 북한도 나름대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존재로 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보수교회와 진보교회의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체험적 반공주의에 기인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정부 주도의 통일논의가 민간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먼저 통일운동을 시작한 진보교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통일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담론을 명시한 근거 자료로 진보측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의 ‘88선언’, 보수측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96선언’, 진

2) 김용호·최연식,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23-3(2007), 165-166. 저자들은 대외위협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우리 대북정책에서 보수·진보의 성향을 파악하는 귀중한 역사적 단초가 되며, 전후 한국 사회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명시적 국가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설정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보·보수 연합을 표명한 2000년대의 NCCK-한기총 공동선언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분열 이후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발표된 한국교회 총연합(한교총)의 성명서 및 NCCK의 성명서를 분석하였다. 비록 이론과 실천의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선언과 성명서에 나타난 한국교회 통일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통일 문제와 교회 연합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흐름

주지하다시피, 한국교회는 1953년 4월 ‘예수교장로회’(예장)와 ‘기독교장로회’(기장)로 분열되었다. 두 교단의 분열은 성서해석 방법에 따른 사교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양 교회가 반공·반북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대립관계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신학적 배경에 기초하여 보수는 ‘북한선교’, 진보는 ‘기독교 통일운동’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강타한 극심한 식량난(‘고난의 행군’)으로 33만 명<sup>3)</sup> 넘게 아사하는 절박한 처지가 국제사회에 공개되자,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북한 돕기에 한마음이 되었다. 그 동안 진보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통일운동이 보수와의 연합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가시적으로 1993년 4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남북나눔)

3) 고난의 행군기(1996~2000) 정확한 아사자 통계는 없지만, 2010년 11월 22일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아사자 수는 3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기초자료는 유엔의 지원 아래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1993년과 2008년의 통계자료이다. 통계청은 93년 통계를 나이와 사망률, 탈북인구, 연령별 출산율을 고려한 뒤 2008년 통계와 비교·분석했다. 미국 통계청에서는 50~60만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고, 일각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대 300만 명까지 추산하기도 하지만 실증적 근거는 없다.

이 정식 출범했다. 당시 진보교회는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동력이 급속히 저하되었고, 보수교회는 먼저 통일운동을 시작한 진보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sup>4)</sup> 이에 따라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신학적 성향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고 있던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운동의 자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북지원에서의 연합은 1990년대 중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북한교회재건운동에 진보교단이 동참하지 않음으로서 그 추동력이 점차 약화되었다.<sup>5)</sup> 북한교회재건운동은 실항민 목회자 중심으로 초기에 예장합동과 통합, 기감, 기장이 적극 참여하였으나, 목회자 중심에서 교단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NCKK에 가입된 주요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빠지게 되었다. 49개 교단과 13개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초교파적 연합이었던 만큼 진보교회의 불참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 운동이 김일성 사망과 대량탈북사태로 인해 촉발된 ‘임박한’ 북한 붕괴론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보교회의 이탈과 분단 장기화에 따른 운동력 약화는 일견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이에 대북지원은 ‘퍼주기’와 ‘북한정권 수명 연장’ 논란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북한교회재건운동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교회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면 단연 탈북민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탈북민은 그 동안 베일에 싸여있었던 북한 내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이자 ‘통일선교의 마중물’로 간주되었다. 보수교회는 탈북민을 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탈북을 적극적으로 지원

4) 김병로, “기독교 대북 NGO의 분화와 지형분석,” 『기독교와 통일』 2(2008), 69.

5) 한기총은 1995년 8월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결성하고, 2,069개 교회 재건을 목표로 각 교단의 교세 비율로 나누어 배당했다. 재건위 창립과정에서는 실항민 목회자 중심으로 진보교회까지 포함하는 지도자급 목회자들이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조직구성과 실행과정이 보수교단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기감, 기장, 성공회 구세군 교단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고 조직한 주체적 행위자였다. 그 중심에는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교회의 재정후원으로 브로커와 연결하여 탈북민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데 앞장섰다. 비록 지금은 중국정부의 선교사 추방과 브로커 네트워크 와해, 코로나로 인한 북한정부의 강력한 국경봉쇄로 탈북자 수가 급감했지만,<sup>6)</sup> 중국 내 30여 만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탈북자를 돌보는 사역은 탈북민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시도되었던 보수-진보 연합의 노력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통일담론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보수교회 내에서 ‘평화’ 아젠다가 ‘친북적인 진보정권의 기치와 동일시되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진보교회와 보수교회의 통일담론은 각각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sup>7)</sup> 과거 1970~80년대 기독교 통일 및 평화 운동을 견인해왔던 진보교회는 통일을 인간안보와 항구평화의 길로 인식하여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며,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 점차 통일인식이 낮아지는 속에서도 통일을 북한 복음화로 이해하는 보수교회의 소명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명의식은 강력한 동원력과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통일운동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이 보수교회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여에 관한 한, 보수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5만5천여 개신교회 중 통일선교사역에 참여하는 보수교회는 약 800여 개로 추산되며, 주된 사역으로는 통일·북한사역자

6)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22년 12월 기준 33,882명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이후 2022년 12월까지 입국자는 359명에 불과하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자료).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3.3.2.)

7) 전순영, “기독교 통일교육의 쟁점과 개선 방향성: 사례연구로 본 통일교육 주체의 통전적 균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2(2022), 202.

또는 단체 지원, 자체 또는 연합 통일기도회, 탈북민 선교, 통일교육 등이 있다.<sup>8)</sup> 이처럼 보수교회가 통일 문제에 선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진보교회는 분단·통일·평화·생태·환경·여성 등의 이슈를 연계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선언과 성명서에 이러한 관점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 2. 선언과 성명서에 나타난 통일담론

### 1) NCCK의 88선언과 한기총의 96선언

통일운동에서 처음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진보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1988년 2월 NCCK 명의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이 공표되었다. 이 선언은 통일운동의 주류를 ‘민중주체·평화의 통일’로 규정하고 민주화와 정의사회 실현을 통일의 목표로 삼았다.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분단에 대한 교회의 죄책 고백으로, 형제요 동포인 북한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인정한 것이었다. 분단이 가져온 모든 질고의 원인을 북한 공산주의 정권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인식하고, 회개와 화해를 통일신학의 대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88선언은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북한교회 실체를 인정했으며 북한이 주장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선언을 계기로 보수측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한기총 산하 통일정책위원회는 당시 49개 가맹교단과 13개 단체를 대표하여 “한국교회 통일정책선언문”(96선언)을 공표하였다. 북한 북음화를 위한 통일의 필요를 강조한 96선언은 보수교회의 원리적인

8)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2020년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자료집」, 21.

통일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북음주의권에서 평화통일신학 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 2) NCKK-한기총 공동선언문(2000, 2007, 2010)

2000년 NCKK와 한기총은 처음으로 8·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절 전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간에 드러진 헌금을 북한의 기아 돕기에 사용할 것을 호소했다. 2004년에는 한기총과 NCKK, 그리고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연합예배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2007년 한기총과 NCKK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는데, 평화통일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임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민단체들 및 세계교회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2010년에도 두 기관은 ‘한국교회 8·15 선언’을 공동낭독하면서 교회의 분열과 교파주의로 인해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탈북자 등 약자의 편에 설 것을 다짐했다.<sup>9)</sup>

이 시기까지 보수와 진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교대로 공동 주관하는 등 연합의 행보를 이어갔다.<sup>10)</sup> 이는 북한의 식량난과 이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연합에서 형성된 흐름이었고, 여기에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 인사들 간의 신뢰 관계도 일조했다.<sup>11)</sup> 1998년에는 NCKK와 한기총의 통

9) ‘이제는 평화·통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자,’ 『크리스찬투데이』(2010.8.18.) <http://www.christiantoday.us/17697> (검색일: 2023.3.2.)

10) 1959년 장로교가 통합·합동으로 분열되고 성결교도 기성·예성으로 나뉘면서, 1962년부터 진보측과 보수측이 각각 따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1973년 보수교단들이 NCKK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예배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12년 만에 연합예배가 드러지기도 했다. 90년대에는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상시조직화하여 매년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다가 연합예배 주최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위원회가 해체됐다. 2006년부터는 NCKK와 한기총이 매년 공동으로 번갈아 주관했지만 이 연합행사는 한기총의 이단 영입 논란 등으로 흥역을 치르며 2011년까지만 유지됐다.

합이 추진되면서 한동안 교회 연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2007년 결국 무효화되고 말았다. 더욱이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개최 문제로 벌어진 갈등은 이러한 연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 8월 교계 연합으로 70개 교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개최되었으나, NCKK는 이 행사에 불참했다.<sup>12)</sup>

### 3) WCC 10차 총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2013)<sup>13)</sup>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서는 남북한 교회, NCKK, 조그런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도록 협력할 것,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회가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할 것,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군사훈련 중단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것, 평화의 최대 위협인 핵무기가 불가역적으로 제거되도록 촉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11) 임완철, “199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문화적 기원 연구-‘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5-46.

12) ‘열망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민족의 평화 이뤄내겠다,’ 『조선일보』(2015.8.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5/2015080502142.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05/2015080502142.html) (검색일: 2023.3.2.)

13) 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oc No. PIC 02.3), World Council of Churches 10th Assembly, 2013.

4) 한교총의 6·25전쟁 70주년 성명서(2020)<sup>14)</sup>

한기총을 대신할 연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sup>15)</sup> 2016년 90%의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연합단체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결성되었다. 보수와 진보의 연합을 표방한 한교총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문제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6월17일자 성명에서, 무력에 의한 한반도 분단극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성명은 휴전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일깨우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영구분단정책을 비판하며, 무력과 대결을 통한 적대시 정책 대신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다가올 죽음을 피하지 않으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든 손양원 목사의 삶이 이 험난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문은 용서와 사랑, 순교정신으로만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 한교총은 광복 75주년 성명서에서도 남북의 평화공존과 종전선언으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등장하던 ‘복음화’와 ‘복음통일’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조속한 남북교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탈북자 수도 급감함에 따라 이전까지 수행해왔던 직간접적 선교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데 따른 내부적 고민이 있음을 보여준다.

14)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대로를 닦아 나가자,’ 『국민일보』(2020.6.17.)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4701853> (검색일: 2023.3.2.)

15) 한기총은 2011년부터 금권선거 논란, 이단시비, 과도한 정치색 등의 논란으로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5) NCKK의 한국전쟁 70주년 성명서(2020)<sup>16)</sup>

NCKK 신학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여성위원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호소문에서, “분단의 극복은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온전한 회복”에 관련된 문제이며, “교회의 선교적 소명은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교회 세우기 또는 복음전파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sup>17)</sup>를 ‘복음 전도에서 세상에서의 살림 구현까지’로 폭넓게 이해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CKK는 남북 정부에게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것, 세계교회에게는 국가나 민족의 지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sup>18)</sup> WCC에 대한 반론과 갈등으로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유보적인 보수교회와 비교되는 행보이다. 한국교회에게는 갈등의 유발자가 아니라 화해자로서 평화질서를 만들어갈 것을 호소하면서 타자 배제와 악마화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통일담론의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경계와 우려에

16) ‘한국전쟁 70년, 한국기독교교회 평화호소문,’ (NCKK 홈페이지, 2020.6.17.)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006170002> (검색일: 2023.3.2.)

17)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지금은 복음주의권에서도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되었다. 이는 로잔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복음화국제대회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와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의 주도 하에 채택된 로잔 언약은 복음전파와 사회참여를 모두 ‘기독교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것은 1970년대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에 대한 급진적 해석을 시도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선교신학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인 신학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었다.

18)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교회 연합에 기여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운 공헌도 있지만,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존중을 종교다원주의로 이해한 복음주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보수주의 일각에서는 WCC를 옹공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1954년 에반스톤 총회 보고서에 나타난 WCC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산주의 확산이 사회 불의에 대한 무관심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며 교회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WCC에는 예장통합, 감리회, 성공회, 기하성(순복음) 등 주요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 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 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침서

(2021)<sup>20)</sup>

통합측은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NCKK와 타교단과도 교류협력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예정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제101회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서는 북한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용서와 화해의 복음(엡 2:14-17)을 실천하여 민족복음화와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문제이다. 북한선교의 내용으로는 북한 교회 지원 및 재건축, 인도적 지원,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 북한이탈주민 선교와 통일 후 북한교회 지도자 육성 등이 있다.” 이 지침서는 2016년에 처음 공표되었는데, 통일 전략으로 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은 남한교회 개혁과 일치할 것, 조그련을 통해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실행할 것,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전략으로 수립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치유와 화해, 비폭력과 정의로운 평화, 생명공동체와 희년, 경제정의의 신학적 사상은 열린 보수로서 진보와의 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19) 일례로 한기총이 주도한 태극기집회는 보수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친미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0년 1월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 정치집회 참여에 대한 반대는 일반인 84%, 기독교인 81%로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2020년 8월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도 목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기독교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73%가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반대했으며, 81%는 정치적 집회나 활동참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0)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남북한 선교통일 정책』,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21), 71-72.

### III.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정치화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는 각각 다른 신학적 기초 위에서 나름대로 통일담론을 형성해왔으나, 점차 보수교회는 신학보다 이념에 더 좌우되는 행태를 보였다. 대북·통일정책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르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 기독교인 다수가 집결한 정치집회의 효시는 2003년 구국기도회였다.<sup>21)</sup>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회가 집단극화<sup>22)</sup>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교인들은 특정 정권을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정치집회의 주요 세력 집단으로 부상했다. 2020년 설문에 의하면 그들이 보수적 정치이념을 갖게 된 것은 부모의 영향이 기본적인 계기이며 대북정책 등에 대한 반발로 이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한국교회 통일담론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집단기억과 정치권 통일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여기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집단기억의 영향력이다. 집단기억 또는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의하면 “모든 기억은 본질적으로 집합적-사회적 현상”이다.<sup>24)</sup> 한국전쟁 이후 북한보다 교세가 약했던 남한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월남 기독교인들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sup>25)</sup> 영향

21)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2018), 150-151.

22) 집단극화(group-polarization)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후에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결정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극단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3) 한국교회탐구센터 제10차 교회탐구포럼 자료집(2020.11.18.), 5. 이 조사는 2020년 9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으로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한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1\%$ .

24) 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trans. F. Ditter & Ditter (New York: Harper Colophon, 1980[1925]), 23.

25) 해방 직전인 1941년 기독교 인구는 북한 22만8천 명, 남한 11만1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력이 컸던 월남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공주의는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대다수 교회에 확산되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60대 이상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되면서 주류를 이루는 집단기억을 형성했다.<sup>26)</sup> 전쟁기억은 대표적인 트라우마 기억이자, 개인적 기억이면서 동시에 집합기억이다. 죽음의 공포, 가족과 친척 학살, 재산박탈, 이산과 유랑의 고통이 핵심 기억으로 보존된 월남 기독교인들은 그 기억을 폭력의 칼로 변모시켰다.<sup>27)</sup> 그 칼날은 북한, 그리고 친북 또는 중북으로 의심되는 진보주의자를 겨냥하며, 때로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타자를 향한다.<sup>28)</sup> 현재까지도 전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한의 존재가 그들의 공포를 상존적 실재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비해 정치집회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sup>29)</sup>

---

남한 장로교의 경우 전쟁기에 교세가 급성장하여 1953년 말 장로교인 숫자만 25만 명에 이르렀고, 그 중 4분의 1이 월남자였다. 서명원(Roy E. Shearer), 이승익 옮김, 『한국교회성장사(Wild Fire: Church Growth in Korea)』(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289. 이 책에서는 1953년 말 기준으로 장로교인 중 월남인을 5만 9천~6만7천 명 정도로 추산했다. 강인철은 1945년 해방 당시 전체 개신교 신자의 60% 가량인 20만 명이 북한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의 35~40%에 해당하는 7만~10만 명이 1945~1953년 사이 월남했다고 본다. 강인철, “남한의 월남 개신교인들: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차별적 영향,” 『종교문화비평』 13(2008), 132-135.

- 26) 전순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기억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366.  
 27)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옮김, 『기억의 종말』(서울: IVP, 2016), 55. 개신교 신학자 볼프는 기억이 개인을 치유하고 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수긍하는 한편, 악행의 기억 자체에 고통과 고난이 연루되어 있고 때로는 그 기억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억이 ‘방패와 칼의 양가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과거 폭력의 기억은 당시의 고통과 공포를 현재로 소환하기 때문이다.  
 28) 전순영·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275.

이 장에서는 먼저 정치권의 통일담론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정치권의 통일담론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주장했으나 이후 제2공화국에서 폐기되었고, 민간에서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이 대두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내세워 반공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쳤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완화(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박정희 정부는 ‘선평화 후통일’론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30)</sup>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시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처음으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통일헌법’을 제안하였으나 민간 차원의 통일담론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sup>31)</sup>

변화의 계기는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탈냉전으로 전환하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찾아왔다. 노 정부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당시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을 비롯,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를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노 정부가 적극 추진

29) 전순영·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262.

30)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 2009), 171.

31) 강원택, “통일담론의 전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통일부 통일교육원, 2021), 64.

한 북방정책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통일담론을 활성화했고, 1989년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한국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으로서 여전히 연속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며,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토대로 한다.

〈표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sup>32)</sup>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해협력: 평화공존 추구	남북연합: 평화체제 전환	통일국가 완성: 선진 민주국가
화해·교류협력 상호체제 인정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	남북합의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체계화 남북연합기구 운영	1민족1국가 정치공동체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로 통일정부 구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자체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상적인 통일 방안으로서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으로 유지되어왔지만, 얼마나 규범력과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상정된 통일국가 모형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수정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므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붕괴 가능성도 있지만 핵으로 위협하는 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일관된 태도

32)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내용 요약. (검색일: 2023.3.2.)

를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sup>33)</sup> 따라서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시마다 대북·통일정책의 기초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비교<sup>34)</sup>

구분	진보정부	보수정부
정책 목표	분단관리, 평화공존, 사실상의(de facto) 통일	법적·제도적 통일, 통일준비
대북 인식	북한체제 인정, 협력 대상	북한체제 불인정, 경제·적대 대상
통일 및 북한인권	특수성 강조	보편성 강조
정치·경제 연계	정경분리, 핵문제 하에서 남북협력 모색	정경연계, 先 핵문제 해결
상호주의	느슨한 상호주의	엄격한 상호주의
접근방식 및 정책수단	관여(engagement) 정책, 유인수단 중시	봉쇄(containment) 정책, 압박수단 중시
이념 및 실용주의	실용주의, 성과 강조	이념과 원칙 강조
협력관계	남북협력 중시	국제협력 중시

그럼에도 양 진영이 반드시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주요 사안별로 동일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사점을 보여준다.<sup>35)</sup> 첫째, 북한을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같은 민족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북한 정부와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도 대

33) 이회준·노미진,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35-1(2019), 36.

34) 이규창 외,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7-01, 2017), 12.

35) 김형석,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통일문제연구』 29-2(2017), 259-264.

비해야 하지만, 그것이 미칠 재난 수준의 파장을 고려하여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온 것도 공통적이다.

〈표 2〉에 제시된 관점과 접근방법은 대체로 한국교회의 통일담론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는 정권 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면서 사안마다 정치쟁점화되었다. 정치권의 통일담론은 한국교회에 깊은 신앙적 성찰 없이 이식되어 이념갈등을 촉발했고, 이는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과 이에 거부감을 갖는 기독교인 간의 분열로 이어졌다.

## 2.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분열과 문제점

신학적 근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진보교회와 보수교회의 통일담론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인지, 통일·통일선교·평화에 대해 통진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보수가 강한 교회일수록 북한체제가 일시에 붕괴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되는 통일을 꿈꾼다.<sup>36)</sup> 여기에는 독일 통일의 선례가 큰 영향을 끼쳤다.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로 통일을 원하는 민심을 결집시켰다는 이야기는 이상적 모델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교회들이 교류하면서 그것을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명명했지 통일운동으로 명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반면 진보교회의 통일담론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36)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붕괴시 한반도의 미래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김정은 사망시에도 대체 리더십 등장으로 안정화 가능성이 더 높고 우발적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정전체제 하에서는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서울: 평화세상, 2008), 268-69;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통일정책연구』 23-1(2014): 41-66.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고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교방식을 지양하는 진보교회의 통일담론은 복음복음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보수교회에 비해 선교적 열정과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진보교회는 탈북민 선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통일담론이 형성되는 대표적 공론장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의제 분석 결과, 진보측의 통일교육에서 탈북민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수측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7)</sup>

진보교회는 평화를, 보수교회는 통일선교를 강조하는 통일담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복음 선포의 차원과 함께 개인적 차원과 역사적·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교회의 통일·평화 담론은 통일·평화운동과 북한선교 양자를 통합하는 중도적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통일 전 서독이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통일교육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견대립이나 국수주의적 담론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V.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한 제언

근래 한국교회 양 진영에서 발표된 성명서들은 90년대 이후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입장에서 일군의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통전적 평화통일신학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sup>38)</sup> 또한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상이한 목소리를 내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37)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시행된 통일교육 프로그램 주제 분석에 의하면, 진보측의 ‘기독교청년통일아카데미’에서 탈북민 주제는 단 1회 다뤄진 반면, 보수측의 ‘통일선교아카데미’에서는 8회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전순영, “기독교 통일교육의 쟁점과 개선 방향성: 사례연구로 본 통일교육 주제의 통전적 균형을 중심으로,” 207.

38) 전순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기억화의 모색,” 366.

하던 일부 교계 인사들은 분단시대에 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교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NCKK와 한기총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10월 ‘평화통일연대’를 설립했다.<sup>39)</sup>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기 위한 노력에서는 강변교회 원로목사이자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명예회장인 김명혁 목사, 덕수교회 원로 손인웅 목사, 예장총합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 목사, 경동교회 원로인 박종화 목사 등의 통합적 행보가 돋보인다.<sup>40)</sup> 비교적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외국인과 재외한인들이 북한의 합법적 경계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교육 및 선교 목적의 사업을 펼쳐온 것도 한국교회의 대북인식을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운동에서 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교회 통일담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1. 성경적 통일신학의 확립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유의 통일(엡 1:10),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창 45:5-8),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 5:44)은 하나님의 뜻이다. 역대하 28장 8-15절에는 시리아-에브라

39) ‘기독교 내 평화·통일 담론 이끈 10년 감사,’ 『기독교공보』(2020.11.22.),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727480431> (검색일: 2023.3.2.)

40) 88선언에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던 김명혁 목사는 포용적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1990년 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때 범종교적 대북지원에 앞장섰다. 손인웅 목사는 1998년 14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를 통해 NCKK와 한기총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당시 함께 참여했던 고(故) 옥한흠 목사를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했다(『국민일보』2018.11.28.). 예장총합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 목사도 보수 교단들과 NCKK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1986년 NCKK 회장을 맡아서 당시 한기총 회장이던 최훈 목사를 자주 만나고 협력하여 북한에 쌀을 보내는 등 연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2006년에는 한기총 회장에도 취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진보와 보수 연합기관의 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박종화 목사는 평통연대를 설립하였다.

임 전쟁(BC 735-732) 때 북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왔는데, 오벳이라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포로들을 선대하고 돌려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사가는 성전 중심적 민족통합을 위해 의도적으로 북왕국의 선행을 기록했던 것이다.<sup>41)</sup> 복음서는 소외계층인 사마리아인을 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부각시켜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비판했고(눅 17:11-19; 눅 10:25-37; 요 4:7-26), 사도행전은 사마리아를 포함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선포한다(행 1:8). 레위기 19장 17-18절에서 화해의 증거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는 첫째,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둘째, 이웃의 죄를 견책하며, 셋째, 원수를 갚지 않고, 넷째,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다. 성경적 통일신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성경적 통일신학을 행함과 진실함으로(요일 3:18) 실천한 화해자들의 사례가 있다. 故 한경직 목사, 故 김준곤 목사, 김명혁 목사, 김상근 목사는 개인적으로 한국전쟁기에 가족이 피살되는 등 북한 공산당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민족 복음화의 대명제 앞에 북한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한경직 목사와 김준곤 목사는 북한선교와 대북지원을 적극 주도했고, 김명혁 목사와 김상근 목사는 강경한 반북·반공 정서를 뛰어넘어 인간의 죄악과 고통에 대한 역지사지의 공감대로 북한이라는 타자를 포용했다. 특히 김상근 목사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 경험을 통해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sup>42)</sup> 그들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 속의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41) 김회권, “역대기서의 민족 화해 신학,” 『신학사상』 152-1(2011), 36.

42) 『나와 예수 - 김상근 아버지 살해한 北, 화해 쉽지 않았죠』 『국민일보』 (2018.10.2.)

을 지닌 인격체로 볼 수 있는 신앙적 시각을 견지하는 본을 보였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생래적 악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함과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분투한 화해자들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후대의 노력에 귀중한 자원을 제공해준다.

## 2.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대북관 정립

김정은 집권 10년을 넘긴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업, 경공업, 건설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대북인식은 아직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지만, 그로부터 벌써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북한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 언론에 등장하는 평양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백화점마다 명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에는 2개의 당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당이고 다른 하나는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북한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sup>43)</sup> 국가소유 토지이용권과 주택이용권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휴대전화 보급 추정치가 2020년에 600만 대를 넘어섰고,<sup>44)</sup>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와 가요를 듣고 패션 등을 모방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북한 당국이 2021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비사회주의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43) 그러나 시장화가 곧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시장은 여전히 당국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등 일부 생산재시장, 그리고 소규모 소매업은 합법화하였으나 대규모 소매업을 비롯한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적인 경제영역으로 남아있다.

44) 2000~2021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statistic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검색일: 2023.3.2)

은 그 방증이다. 당시 북한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북한일까? 이른바 ‘극장국가’<sup>45)</sup> 북한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대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실상은 ‘회칠한 무덤’(마 23:27) 같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마 7:26)인가? 북한선교를 꿈꾸는 한국교회는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시 북한이 후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북한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2020년 보수 기독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정권은 무너뜨려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79%로 나타났는데,<sup>46)</sup> 만약 북한이 현 체제로 장기 존속할 경우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한 고착된 인식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들, 전문연구자들, 현장사역자들에 의해 검증된 정보에 기초한 북한 이해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하며,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가중될 혼란을 막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냉전적·반공적 대북관이나 막연히 긍정적인 대북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탈냉전적이고 객관적인 대북관을 가져야 한다.

45)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79년에 제안한 권력이론에 나오는 개념이다. 기어츠는 19세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의 정치적 권위는 왕이 사회와 우주의 중심임을 주기적인 의식으로 과시하는 데 기반을 뒀다고 주장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이 개념을 빌려 북한 정치과정의 상징과 은유를 분석했고, 권현익 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칼리지 석좌교수와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2013년 『극장국가 북한』(창비)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현대판 극장국가’ 북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유혼정치’ ‘도덕의리의 정치’라는 관용어와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열망이라고 설명한다.

46)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보수 기독교인 정치의식 조사 발표,” 23.

### 3. 기억의 치유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유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북한 공산주의와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적 기억이요,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신학적 노선과 대북관의 차이로 분열을 거듭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형성된 적대적 기억이다. 이는 교회 외부의 타자에 대한 배제와 교회 내부의 타자에 대한 배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타자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용서의 본질은 악행과 악행자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죄의 결과를 짊어지심으로 악행의 형벌을 악행자들에게서 분리시켰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악행자들도 실제로 죽었기에 그들에게서 죄책이 분리될 수 있었다.<sup>47)</sup>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행위를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인들은 악행과 악행자를 분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전쟁과 북한에 대한 기억을 적대적이고 비화해적인 방식으로 재현해왔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표현에 따르면, 원한을 품고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하려고 그의 악행을 일일이 기억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수난의 렌즈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것이다.<sup>48)</sup> 화해의 방식을 추구하는 기억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수난의 렌즈를 통해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화해를 위한 기억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이질적 타자의 포용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타자 안에 있는 선을 찾아내고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화해의 기억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트라우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47) 볼프, 『기억의 종말』, 285.

48) 위의 책, 178.

북한을 포용하는 문제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대북 기억과 대북관으로 인한 분열의 기억은 양쪽 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을 포용하는 문제가 화해와 평화, 통일뿐 아니라 교회 연합과 일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은 용서와 화해를 추동할 뿐 아니라,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가능케 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한국교회의 새로운 통일담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통일신학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대북관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교회 연합과 일치 그 전제조건이자 열매로서 주어질 것이다. 한국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남한 사회의 통합과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사회규범과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는 양쪽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미달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왜곡되고 억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교회는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에 가장 비판적인 비기독교인들과 청년층까지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체계(자유, 평화, 인권, 타자 포용 등)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시민단체로서, 민간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선도하는 용서와 화해가 한반도 평화통일로 이어진다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타자 포용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의 중요성을 전하는 메신저

가 될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때에, 한국교회는 시대의 일부가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며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근접하도록 하는 역사적 소명이 한국교회에 부여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통일담론의 전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통일교육원, 2021.
- 강인철. “남한의 월남 개신교인들: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차별적 영향.” 『종교문화비평』 13(2008), 131-158.
- 김병로. “기독교 대북 NGO의 분화와 지형분석.” 『기독교와 통일』 2(2008), 67-86.
- 김용호·최연식.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23-3(2007), 163-190.
- 김형석.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통일문제연구』 29-2(2017), 241-269.
- 김희권. “역대기서의 민족 화해 신학.” 『신학사상』 152-1(2011), 9-5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남북한 선교통일 정책』.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1.
-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통일정책연구』 23-1(2014), 41-66.
-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서울: 백산서당, 2009.
- 이규창·김수경·박종철·신중호·이우태·한동호·홍민·홍우택.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기형.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3(2006), 106-145.
-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 이화준·노미진.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35-1(2019), 23-45.
-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2018), 150-151.
- 임완철. “199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문화적 기원 연구—평화와 통일

- 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 전순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기억화의 모색: 한국교회 연합의 기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347-373.
- \_\_\_\_\_. "기독교 통일교육의 쟁점과 개선 방향성: 사례연구로 본 통일교육 주제의 통전적 균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2(2022), 191-218.
- 전순영 · 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257-282.
- Volf, Miroslav. 홍종락 옮김. 『기억의 종말』. 서울: IVP, 2016.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trans. F. Ditter & Ditter. New York: Harper Colophon (1980[192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2020.
- 목회데이터연구소. 「Numbers」 21(2019.11.6.); 61(2020.8.28.)
- 승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자료집」. 2021.
-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탈북민교회 현황 (미공개 자료)」. 2022.
- 한국교회탐구센터 제10차 교회탐구포럼.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보수 기독교인 정치의식 조사 발표 자료집」. 2020.
- '열광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민족의 평화 이뤄내겠다.' 『조선일보』(2015.8.6.)
- '기독교 내 평화·통일 담론 이끈 10년 감사.' 『기독교공보』(2020.11.22.)
- '나와 예수 - 김상근 아버지 살해한 北, 화해 쉽지 않았죠.' 『국민일보』(2018.10.2.)
- '이제는 평화·통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자.' 『크리스찬투데이』(2010.8.18.)
- 한국교회총연합 홈페이지 (<https://www.ucck.org/>)
- NCKK 홈페이지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006170002>)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00~2021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statistics*.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02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한국교회 통일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통일담론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1980년대까지는 정부가 통일담론을 주도했지만, 민주화 이후 민간영역에서도 통일논의가 자유로워졌다. 통일담론이 형성되는 영역은 정부 및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를 두루 포함하며,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계속 그 내용이 달라져왔다. 교회의 통일담론은 진보교회의 견인, 보수교회의 참여, 진보와 보수의 연합, 담론의 분열을 거쳐왔다. 진보교회는 평화를, 보수교회는 통일선교를 강조하는 통일담론을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통일담론이 깊은 신학적 성찰 없이 한국교회에 투과되어, 특히 북한 인식 영역에서 신앙적 고백보다 정치적 이념에 더 좌우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복음 선포의 차원과 함께 개인적 차원과 역사적·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교회의 통일담론은 통일·평화운동과 북한선교 양자를 통합하는 중도적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적 통일신학,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대북관, 교회 연합과 일치의 토대에서 기억 치유로서의 새로운 통일담론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한국교회 통일담론, 이념갈등, 대북관, 성경적 통일신학, 교회 연합, 기억 치유

---